

농촌진흥기관의 소비자농업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신 영 숙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장

1. 소비자지향 농업 추진여건 및 역할

우리의 농업·농촌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와 함께 중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며 우리 삶의 터전을 지켜 왔다.

그러나 식품산업 및 외식문화의 발달로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우리 고유의 쌀밥과 부식이 어우러진 식사문화가 점점 쇠퇴해지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각종 성인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화로 소비자들의 농산식품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가 높아져 가고 있으며(식품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 57%, '04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소비자들은 그들의 선호에 부응하는 친환경농업, 농식품 안전성, 한국형 식생활, 식품영양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①소비자로서 식품정보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체험, 교육, 실습 요구 : 76.9%, '04 농촌자원개발연구소, ②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좋은 농산물 생산과 고르는 요령에 대한 홍보·교육, 상설 전시 등 요망, '05 농촌진흥청 소비자단체장 간담회).

앞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소비 성향은 점차 고급화, 다양화, 간편화, 안정지향적 소비가 가속화 될 것이며, 주5일제 근무와 웰빙 문화의 확산, 자연과 전원생활 동경, 지역균형 발전 정책, 바이오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우리의 농업은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점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이에 우리 농촌진흥기관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 까지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한 결과를 생산자에게 피드백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농업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따라서 농업의 최종고객인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파트너쉽 배양을 위하여 2003년부터 전국의 농촌진흥기관에서 소비자 대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소비자농업의 개념과 역할

< 소비자농업(Consumer's Agriculture) 이란 >

농업의 최종 고객인 소비자의 의견을 농업의 전 과정(농장→식탁)에 반영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농업.

- ┌ 소비자의 농업 : 농업은 농업인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의 것임
- └ 소비자를 위한 농업 : 소비자를 위하여 안전한 식품과 환경 제공
- └ 소비자에 의한 농업 : 생산부터 소비 전과정에 소비자 의견 반영



< 농촌을 찾는 도시 소비자를 위하여 >

농촌을 이해하고 삶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농촌지도기관의 지도역량과 농촌문화 · 농업소재를 결합한 소비지지향 농업 지원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 ▶ 단기적으로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 ▶ 중기적으로는 농업 · 농촌에 대한 애정과 이해
- ▶ 장기적으로는 농촌으로의 정주가 이루어지는 도농교류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담당

2. 주요 추진현황 및 성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촌자원 · 농업정보』를 지원, 고객 만족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비자농업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 · 중앙단위에서는 소비자농촌생활대학을 운영하는 한편 정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도농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농촌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소비자 마인드를 분석하여 현장에 피드백 함으로써 농업 · 농촌 가치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 소비자 대상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한 단계별 정보 지원 >

공간범위	도 시			농 촌
	입문기	적응기	응용기	정착기
개 념	농촌을 알아가는 시기	농촌을 이해하고 도우며, 적응하는 시기	간단한 영농을 배우고 경험하는 단계	농촌에 정주, 전원생활 및 휴식
농촌진흥 기관의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농업·농촌교육 ▪ 소비자의 방 운영 ▪ 도시민농촌생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사1촌 운동 참여 ▪ 도농교류 활동 지원 ▪ 농촌사랑서포터즈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쉬운 영농체험 ▪ 주말농장, 텃밭 ▪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활동 지원 ▪ 농촌빈집 활용

가. 소비자 만족을 위한 생활과학기술교육 운영

사업대상을 농업인에서 소비자와 농업인, 관련단체로 폭을 넓혀나가는 소비자 지향농업은 중앙단위(53명, 10회 회원제교육)와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소비자농촌생활대학을 연중 회원제로 운영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소비자의 역할, 농산물 식별체험, 안전농산물관리제도, 전통음식 체험 실습, 지역의 농업현장과의 연계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소비자 들은 수료 후 농업·농촌 서포터즈가 되어 우리농산물 지킴이 역할을 할 것을 결의하고 생산자단체, 농촌체험 관광마을과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꾸준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비자농업교실을 운영하며 소비자에게는 농업농촌의 현장을 배우고 안전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구매정보를, 농업인에게는 소비자의 마인드와 요구, 고객관리와 판매전략 등을 교육시키고 있다. 132개 농업기술센터에서 소비자농업교실을 개설하여 59,114명의 도시 소비자와 26,078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농산물의 생산 및 구입,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교육과 소비자마인드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한번 인연을 맺은 도시소비자에게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자매결연을 맺어 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와 농업인이 하나 되어 농촌의 희망을 이끌어어나가고 있다. 시군별로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여 우리의 향토음식을 체험토록 하면서 얻어지는 신뢰는 소비자를 위하여 농촌진흥기관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농업현장과의 연계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향토음식 맥 잇기 체험장” “농산물가공 사업장”을 도시민 모임의 장소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의 향토음식 보유자를 활용하여 향토음식 체험을 통하여 어린이와 소비자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인천에서는 썩개떡, 찌빵, 패백음식, 김치 제조기술이 뛰어난 향토음식보유자와 함께 체험을 실시하고 주변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밭에서 직접 수확하여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주선 함으로써 인근 농가에 도움을 주었으며,

대전에서는 전통음식과 인근의 농촌생활문화 체험을 연계 실시하고 인근 농가에 소비자들의 기호와 성향을 분석 제공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친근한 관공서가 되었다”는 찬사와 함께 농업·농촌을 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소비자가 되기 위한 결의를 하기도 하였다.

나. 소비자농업 정보 네트워킹

농촌진흥기관이 중심이 되어 소비자단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농업인단체, 연구기관, 가공·유통기업과의 정보망을 형성하여 경기 수원, 양평, 김포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비자대상 카페를 운영하였고, 충북 청주시 외 8개소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공간을 설치하여 농산가공품, 전통생활기술 상품, 농산물 등 판매 및 정보제공, 농산물·농촌체험 희망자에 대한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소비자의 방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지역에서는 생산자 단체와 도시여성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로 2006년 한 해 동안 사이버 농사체험·직거래장 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구매활동이 48,799회 이루어졌다.

다. 도농교류활동을 통한 농심나누기

도·농간의 화합분위기 조성과 농업·농촌 재도약을 위해 도시여성과 농촌생활개선회원이 함께 펼치고 있는 도농교류활동이 도시민과 농업인을 하나 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119개 시군에서 소비자 129,5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농교류활동은 도시 소비자에게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으며,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지키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도·농 공동체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농업관련기관 및 농장 견학, 농촌전통테마마을 프로그램체험과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실습, 농사체험을 곁들여 발전적으로 운영하여 도시민을 제2의 농촌 가족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 한번의 인연으로 도시민을 농촌의 가족으로 !

전남 광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신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사체험을 곁들인 팜투어를 운영하여 도시민을 농촌가족으로 만들고 있다. 팜투어는 지역의 주작목 생산현장,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와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만남, 농산물가공사업장인 농촌일

감갓기 사업장, 농촌전통테마마을 등 농업과 농촌체험의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비자들은 생산현장을 직접 봄으로써 한 알의 쌀이 밥상에 올려질 때까지 농업인의 노력을 알게 되었으며, 생산자를 직접 만나 믿음이 가고 직접 구입할 수 있어 좋았고 관내 농산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데 대한 감사함과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신뢰감을 표시하였다.

한편, 인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인천농산물 지하철 나들이] 행사를 11개 역사를 순회하며 개최, 1일 전철이용객 3,000여명에게 우리농산물과 전통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농촌사진, 친환경농법 화판전시 등 도시민에게 농심을 심어 주는 계기를 조성하고 우리음식을 배우고자 하는 희망자를 접수받아 쌀음식 실습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소비자를 찾아가는 지도사업을 전개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도농교류 사업의 효과

도시민의 입장	농촌주민의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의 가치인식 및 자녀교육 효과 ○ 안전한 먹을거리 조달 ○ 소비자교육, 인간적 교류를 통한 만족, 고향사랑 등 ○ 농촌주민의 소득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 ○ 안정적인 판로확보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홍보 ○ 소비자교육, 인간적 교류를 통한 만족, 고향사랑 등

* 농어촌연구원(2004) 사례조사결과(도·농상생 비전과전략 심포지엄 자료집 재인용)

각종 행사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회가 되었으며, 어린이와 가족 대상 체험 기회 제공으로 가족이 함께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산교육장이 되고 있다고 반응하였다.

-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실습교육으로 현실성 있는 교육이 되었으며 농산물의 활용가치가 다양함을 인식함
- 농산물 생산현장 체험으로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구축
- 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대한 이해 계기가 되었으며, 고품질 농산물을 싼 가격으로 구입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만족함. 앞으로 소비자 교육 및 도농교류가 더욱 확대 실시되기를 요망
- 영농체험을 통해 농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고향의 향수를 느끼며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됨
- 때론 농업인의 입장에서 때론 소비자의 입장에서 농업이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 줌

이와같이 소비자농업은 **농업인에게**는 도시소비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맞춤 농법**이 가능한 정보를,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 가능한 **도·농**이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 되고 있다.

3. 소비자지향 농업을 위한 농촌진흥기관의 시범사업 현황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전국의 농촌진흥기관에서 추진하는 소비자 대상 농업·농촌 생활문화 체험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도농교류 촉진 기반 조성

- 도농교류 촉진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 131개소
 - 마을별 고유자원 발굴·테마설정, 테마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농촌전통테마마을 홈페이지 운영(www.go2vil.org) 및 웹진 발행
- 농촌체험을 학교 학습과의 연계를 위한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 56개소
 - 농촌체험 학습활동 기반조성, 프로그램 개발, 교육훈련 등 농촌체험 영역의 체계화 및 특성화 추진
- 도시민 농업체험 공간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 : 1개소
 -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농업체험 및 도시민 대상 영농교육 병행 실시

나. 농촌다움과 편리성을 갖춘 주거환경 조성

- 환경친화적인 농촌주택 리모델링기술 보급 : 10마을
 - 농촌체험관광을 추진하는 농산어촌체험마을의 민박농가 대상 주택내부개선, 정원 조성, 생 울타리 담장 등 생태환경 조성
- 농촌마을 내 방치된 빈집, 공동 시설물 및 공간을 활용한 웰-빙 생활 문화 공간 조성 : 12개소
 - 도시민의 전원생활, 귀농인 농촌정착 활용, 마을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

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농식품 공급기반 조성

-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산가공품 개발 및 농산물 가공기술교육 지원 : 82개소
 - 도·시군농업기술센터에 가공교육 시설장비 제공으로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등 부가가치 향상기반 조성
- 전통성이 살아있는 지역농산가공품 공급기반 조성
 - 농촌여성 창업(9개소) 및 품질향상(15개소) 사업 지원 : 24개소
 -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 지원 ('99~'03) : 793개소
- 통합쇼핑몰 우먼팜(www.womanfarm.com) 운영
 -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장 62개소 입점
- 지역성과 향토성이 있는 향토음식 체험농장 육성 : 10개소

- 향토음식을 지역의 대표적인 웰빙 체험 문화상품으로 개발

라. 우리 고유의 전통지식자원과 기술을 가치 있는 문화상품으로 발굴보급

- 천연염색을 친환경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 : 65개소
 - 천연염료식물 재배 및 염료 생산농가의 전통염색기술 중점 보급
 - 명주, 모시, 삼베 등 전통직물의 상품성 향상
- 전통규방공예를 여성의 품격 있는 취미와 문화상품으로 재창조 : 72개소
 - 전통문화와 규방공예에 대한 지식과 제조기술 상품화 : 기념품, 관광상품, 혼례용품 등

4. 앞으로의 과제

농업의 최종고객인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파트너쉽 배양을 위하여 소비자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교육비 등 사업비의 부족으로 체계적이고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질 높은 사업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소비자농업교실』을 시군농업기술센터 내 정규교육과정으로 채택하여 소비자에게는 안전 농산물에 대한 이해, 농산물 이용·구매 정보, 농촌생활문화 등을 교육하고 농업인에게는 소비자 마인드와 요구, 안전 농산물 생산·공급, 고객관리, 마케팅 등의 과정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위한 생활과학기술교육 예산 지원**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형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중요성을 주제로 도시민에게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시민을 위한 농업·웰빙생활 체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과 소비자를 위한 농업·농촌 정보제공의 창 역할을 수행하며, 농촌여성소득제품 직거래, 주말장터 운영, 귀농상담, 농촌체험관광 안내, 연계토록 할 방침이며, 『**소비자를 위한 농업·농촌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농업·농촌의 가치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도·농 한울타리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소비자·농촌현장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농촌사랑 서포터즈를 통한 **농촌전통테마마을 환경과 식단에 대한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하여 바람직한 농촌문화 정착과 농촌체험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은퇴 후 농촌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원생활교육과 손쉬운 영농교육을 지원하고, 농촌에 체재하면서 영농을 경험할 수 있는 『**체재형 가족농원**』을 확대 조성하여 농촌을 이해하고 삶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